

1990년 수교이후 한·몽 사회문화관계 발전

金善浩

- I. 引 言
- II. 한·몽관계의 역사적 배경
- III. 몽골의 개혁과 한·몽수교
- IV. 학술교류
- V. 인적 교류
- VI. 동북아에서의 사회 문화적 역할
- VII. 結 言

I. 引 言

본 글은 오랜 단절의 시간을 지내고 북아시아 유목국가이며 1921년 러시아 다음, 즉 세계에서 두번째로 공산화되었던 몽골과 우리 대한민국이 1990년 역사적인 정식 외교관계를 맺은 이래 정치, 경제 및 인적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와 몽골 사회과학원 동양학연구소 공동주최로 1995년 7월 19일 Ulaanbaatar에서 열린 제 3차 한·몽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임.

교류등의 사회 전반적인 양국간의 관계발전을 역사적, 문화적 관계를 바탕으로 분석, 정리하여 앞으로의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여 보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1990년 3월 한국과 몽골은 정식 수교를 맺은 이래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관계발전을 이룩해 왔다. 역사적으로 13세기 몽골의 고려침입시대에 적대관계가 대표적이었던 것에 비해 우리와 몽골은 750여년이 지난 지금은 적대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을 원칙으로 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양국간의 급속한 관계개선은 1980년대말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면서 이 영향을 받은 몽골내에서의 개혁이 한·몽 접근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와 몽골은 적대관계에서 단절 그리고 재관계정립등의 단순한 과정으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민족문화 간의 유사성과 반도국가와 대륙중심부의 국가간의 연계 필요성등이 현대 한·몽관계 정립의 또다른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으로의 관계 발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양국관계에 있어서 근원적인 요인들(양국간의 관계발전에 있어서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제II장에서 간단히 피력하고 현대 한·몽관계 정립의 근본이 되는 몽골의 개혁과 한·몽수교를 제III장에서 설명한 후 제IV장과 제V장에서는 학술 및 인적 교류발전을 정리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계발전으로 인한 한국과 몽골의 동북아에서의 위치 내지는 역할을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제VI장에서 진단해 보고자 한다.

II. 한·몽관계의 역사적 배경

과거 중세부터 본격화된 우리민족과 몽골민족과의 교류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통한 적대관계 내지는 몽골제국의 속국관계등으로만 이해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문화면에 있어서는 몽골風, 고려樣으로 대표되는 상호 적극적인 교류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고려에서 몽골로 전달된 매사냥, 담배등은 이미 대만 국립정치대 민족학연구소 몽골인 교수 하간추루(Хаганцуруу)씨등에 의해서 고증이 된 바 있다.¹⁾ 매사냥의 경우 해동청이라는 고려북부와 만주지역에 서식하는 사나운 매를 몽골귀족들이 일등품으로 여겼는데 한자명 海東靑은 한문기록에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 몽골어에서 보라(Вора)는 새, 특히 맹금류 등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의 보라매에서 기원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담배 또한 포르투갈어 Tabako에서 우리말 담배로 변형되었다가 몽골어에서는 탐히(Тамхий)로 변화였는데 담배의 몽골유입 경로까지 연구된 상태이다.

이러한 순수한 양 민족간의 문화교류 외에 물론 몽골의 침입 당시 강압적인 문화의 이식도 있었다. 즉, 1231년 1차몽골의 침입 때 고려와 강화를 맺고 72명의 다루하치(집정관)를 두고 칠병을 한 후 몽골의 변방은 고려 서민들에게 강요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몽골의 고려 침입 자체에도 몽골제국의 정책에 의한 계획된 침입이라기보다는 당시 몽골과 고려사이에 있었던 변방 소수민족들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227년 칭기스한의 死後, 계속 그의 계획을 이어받은 후계자들이 당시 몽골군과 고려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金을 정복하기 위해 고려와 연합하여 金의 배후, 즉 遼東반도에 위치하였던 여진족을 정벌하기도 하였지만 1225년 고려로 가던 몽골의 사신이 고려 복장을 한 군인들에게 피살되는 사건

1) 邊政研究, 1983, 1985, 國立政治大, 邊政研究所.

이 일어나고 몽골측의 조사단도 피습을 받게 된다. 이것이 기록에 의하면 몽골의 고려 침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고 하지만 당시 몽골사신이 지나던 길목에는 여진족의 패잔병들이 산적과 같이 산재해 있던 상황이고 여진족의 입장에서는 고려와 몽골에 앙심을 품은 상황이어서 고려복장을 한 여진족들의 소행이라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특히 사료에서도 고려인이라 직접 칭하지 아니하고 고려인 복장을 한 일단의 군인들이라 하여 정확한 판단이 안서는 것을 시사했다.²⁾ 어찌되었건 1231년 1차 몽골의 침입은 몽골·고려관계의 악화를 계속 야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고려의 내부에서도 親宋派의 對몽골항쟁을 주장하는 등 1254년까지 몽골의 6차례에 걸친 고려 침입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1271년 쿠빌라이가 元世祖로 등극한 후 그의 맏딸을 고려 元宗의 아들 忠烈王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후 元의 공주들이 고려의 왕에게 시집을 가는 이른바 사돈관계가 성립되면서 점차 대립의 관계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의 對元에 대한 조공도 역시 역대 중국왕조와 주변국가와의 조공무역관계와 같은 성격의 관계를 유지 하였고 1300년대에 이르러 왕실간의 결혼은 양국의 관계를 더욱 더 밀접하게 만들기 시작하였다. 고려 내에서는 親元세력이 형성되면서 元의 재정을 담당하는 資政院에는 많은 고려출신 관리들이 동용되기도 하였고, 元의 왕실에도 고려출신 后妃들이 나뉘도록 세력을 형성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1368년 元의 멸망이후 몽골민족은 대부분 고비사막 이북으로 철수하였고, 한반도에도 역시 朝鮮이라는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대륙의 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몽골과의 접촉은 극히 드물게 되었다.

1636년 만주족에 의한 淸이 건립되고 淸朝는 몽골을 내, 외몽골로 나누고 다시 여러 盟, 旗 등으로 나누어 가장 성공적으로 몽골을 지배하는 한편 朝鮮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여 몽골과 조선과의 관계 또한

2) 高麗史와 동국이상국집에 의하면 1225년(고종12년) 몽골 使臣 著古與피살사건은 여진족이 세운 고려국경의 東眞國 蒲鮮萬奴의 소행으로 주장한다.

밀접해지지 않게 조정하였다.

1911년 신해혁명의 성공 후 중국의 각 省은 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지만 외몽골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외몽골의 독립에의 갈망은 북부 중국의 군벌세력을 대표하는 元世凱에 의해 좌절되고 1921년에 이르러서야 소련의 도움으로 독립을 이루게 되지만 1947년 중국의 자치구로 선포한 내몽골과는 분리되어 근대 분단 민족의 하나로 된다.

우리민족 역시 1910년 일제의 식민지로 36년간을 핍박받다가 1945년 독립하지만 1948년 강대국에 의한 남북분단과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에 의해 역시 몽골민족과 같이 분단민족의 하나로 된다.

간략히 결론을 내려보면 고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몽골과 우리한민족은 중세에 이르러 타의에 의한 대립관계로 돌입했다가 과거의 사회, 문화부문의 유사성으로 밀접한 관계로 돌아서는 때에 대륙에 들어서서 강력한 국가로 인해 현대에 이르는 장기간 단절의 형태로 변하였다. 여기서 다시 민속부문의 유사성을 간략히 언급하면 우리의 흥부전과 같은 동화가 몽골에서도 구전되고 있고, 몽골의 무당들이 가슴 또는 등에 日月鏡(거울)을 다는 것도 우리의 무속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제주도 돌하루방은 몽골의 동부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石人(훈초로; Хунцуруу)과의 유사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 돌하루방의 경우 남방에서 유입되었다는 설도 있어 좀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며 이렇게 연구과제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몽골민족과 우리민족간의 역사적 측면에서의 사회, 문화교류는 많은 유사성을 통해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II. 몽골의 개혁과 한·몽수교

현대에 이르러 1921년 몽골의 독립과 1945년 대한민국의 독립에서 1990년 몽골의 개혁과 동시에 한·몽 수교까지 몽골과 우리민족은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 왔다.

1921년 소련 홍군의 지원 아래 몽골 민족주의자들은 당시 중국의 세력을 밀어내고 외몽골에 주둔하고 있던 백러시아의 운게른(Ungern)백작을 정벌하고 몽골공화국을 건립하였다. 1924년에 이르러 민족주의 노선의 대표적 인물 수흐바타르(Сухбаатар)와 종교 및 정치의 지도자 접준담바 후투투(活佛)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1952년까지 친소파의 대표적 인물 초이발상(Цойбалсан)이 스탈린식 공포정치를 펼쳐 30년대 말에는 대규모 숙청으로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과 종교세력이 제거되었다.³⁾ 1952년 초이발상의 죽음으로 몽골에서는 젊은 후계자 체덴발(Уеденбал)이 잠시 권력을 잡는 듯하였으나 경험 부족으로 담바(Дамба)가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중국과 가까워지고 한편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였으나 1958년 결국 소련의 간섭으로 담바는 그 세력 기반을 잃고 중국과의 마찰로 1966년 소련군이 몽골지역에 주둔하면서 다시 체덴발이 몽골을 통치하게 되었다. 이후 완전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한 몽골은 1984년 까지 체덴발 1인독재로 경제·외교면에서 고립되었다. 1984년 극도로 악화된 몽골의 경제와 소련에서의 변화가 몽골의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게 되었고 바트몬흐(Ватмонх)가 결과적으로 개혁을 위한 과도기를 담당하는 지도자로 등장하고 개혁의 신속성을 부르짖는 젊은 이들에 의해 1990년 정치개혁부터 시작하게 된다.⁴⁾

1945년 독립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몽골을 비

3) 참조; 拙著 “外蒙共黨權力結構與黨政措施 1921~1952” 臺北, 1985

4) 참조; 拙著 “Die Entwicklung der politischen Beziehungen zwischen der Mongolischen Volksrepublik und der Volksrepublik China 1952~1989” Bonn, 1992

못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이념을 달리하고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도 겪게 된다. 6.25당시 비록 몽골에서는 말과 마차등의 군수송수단을 북한에 제공하여 간접적인 지원을 하였지만 90년들어 우리와의 관계개선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1980년대말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는 몽골의 개혁뿐만이 아니라 한·몽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해 주었다. 1989년말 몽골에서는 70여년동안 타의에 의해 지배되어온 사회주의 이념이 더 이상 몽골의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과격하게 일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는 1990년에 이르러 당시 몽골 인민혁명당 서기장 게. 오치르바트(Г. Очирбат)에 의해 수용되면서 정치개혁의 진전이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몽골에서의 자유 민주화 운동은 기독교 총과 심각한 대립양상을 나타냄이 없이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데 전통적으로 단결의 속도가 빠른 유목민족의 특성과 지역적 종교적 갈등이 없고 인구도 적어 대중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 투쟁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집권층 역시 경제의 낙후와 사회의 혼란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기할만 하다.⁵⁾

당시 한국에서도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와 더불어 이른바 북방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를 적극 권장하는 상황이었어서 1990년 몽골의 개혁이 완전히 자리잡기도 전인 3월 한국과 몽골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던 것이다.⁶⁾ 이렇게 빠른 시일안에 60여년간 관계가 단절되었었고 70여년간 사회이념을 달리했던 몽골과 한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면면히 흘러 내려온 사회·문화간의 유사성이 민족간의 정서적 교감을 가져다

5) William R. Heaton, MONGOLIA IN 1991, Asian Survey, VOL. XXXII, No.1, Jan.1992 PP50~55.

6) B. LKHAGVAA, 1990년 이후의 몽골의 민주화와 그 전망, 몽골학국제학술발표논문, 1995, 중앙대 부설 동북아연구소, P 17.

주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몽골의 개혁과 한·몽수교는 전통적인 것보다 현대적인 것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즉 말보다는 한국의 자동차, 한국의 그것과 유사한 몽골의 전통음악보다는 빠르고 소란한 현대음악등이 현대화의 상징인양 한국에서 몽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한국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어 놓은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정신적인 현대화와 유목사회에 맞는 사회이념의 확립, 전통문화예술의 교류를 통한 한·몽 민족간의 유사성 재발견등의 형태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IV. 학술 교류

1. 제 1 단계(이념차이의 극복)

1990년 3월 한·몽수교 이후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의 관계 활성화이지만, 학술교류 분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기 한·몽관계 수립 후 몽골에서 기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교육제도는 물론 이념적인 면에서도 한국과의 학술교류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고대사나 고고학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념적인 도구로 사용되지 않아 제3절에서 설명할 고고학 분야에서 공동발굴 협약등이 체결되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지만, 특히 중세에서 더우기 몽골민족의 신격화된 영웅 칭기스한을 사회주의 시대에서는 전쟁광 내지는 침략자로 비난하기까지 했으며 1962년 칭기스한 탄생 800주년 기념 해에는 기념우표가 모두 물수되는 상황도 있었다. 결국 중세 이후 몽골의 역사를 변증법적인 관념으로 해석해 역사학쪽의 한·몽 학술교류는 매우 요원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였다.

1990년 7월 몽골최초의 다당제하의 총선거가 있을 때 필자가 몽골을 방문하였는데 몽골에 유학하려는 학생 두 명이 전공분야 선택에서 상당히 고심하는 것을 볼수 있었다. 결국 이념이나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언어학쪽의 전공자들이 우리말과 몽골어를 비교하는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 초기 즉 1990년과 1991년 대부분의 학술교류는 언어학쪽으로 치우쳤다.

국내 언어학자들 중에는 터어키에서 알타이어학을 전공한 호서대학의 최한우 교수와 미국에서 몽골어학을 전공한 유원수 박사등이 이른바 해외 유학파이고 국문학 전공자로 국내에서 나름대로 알타이어학을 연구한 서울대의 최학근, 김방한, 성백인교수등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또 한가지 1940년부터 소련의 알파벳을 몽골어의 표기에 사용한 현대 몽골문자 역시 국내 학자들이 몽골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자 하는데 일종의 거부감 내지는 중세 몽골어분석에서 어려움을 야기시켜 초기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⁷⁾

결론적으로 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한 몽골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교육체제와 과거 몽골사의 왜곡등으로 수교 후 학술관계는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는 데에 주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1년 몽골을 방문한 서강대 동아연구소 대표단과 몽골사회과학원 동양학연구소간의 제1차한·몽학술회의는 양국간의 학술교류의 새 장을 열었고 2년에 한 번씩 상호방문을 통해 학술회의를 개최할 것에 합의를 보아 1993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그리고 1995년 몽골에서 학술회의가 개최된다.⁸⁾

7) 1994년 이후 몽골은 공식적으로 다시 舊몽골문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8) 본 학술회의는 점차 확대되어 한·몽포럼으로까지 발전할 전망이다.

2. 제 2 단계(중세 한·몽관계 재조명)

1980년대에 중세 한·몽관계 분야에 많은 업적을 쌓은 강원대 주채혁 교수는 중세 몽골사의 새로운 시각에서의 연구가 몽골에서도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침략자와 피지배자 형태로만, 즉 대립관계로만 잘못 알려져 온 중세 한·몽관계가 직접교류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되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채혁 교수는 앞서 피력한 몽골과 고려의 전쟁원인 등이 새로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과 전반적인 한·몽관계사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본인은 물론 여러 후학들이 이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 우르몽골, 아르몽골, 부리아트 몽골의 답사와 한·몽관계사 연구 문제
- 바이칼호수의 동·서쪽 지방과 솔론족, 고리족의 전설
- 흙스굴 지역의 버드나무 오보와 유화 전설
- 몽골의 강가와, 아리랑 후렴의 유사성
- 몽골민족의 흰색을 선호하는 문제
- 몽골제국의 직영 목장 총본부인 쉰호바타르 아이막(道) 다리강가에 있는 훈초로와 역시 몽골제국의 직영 목장인 제주도도에 있는 돌하르방의 목초지 수호 기능 문제
- 몽골제국시에 고려를 ‘솔통고스’와 ‘고려’라는 두개의 이름으로 불렀던 역사배경 문제
-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이 들어서면서 주원장이 제주도로 보낸 칭기스한의 친척 80여호의 제주도 정착에 따른 제주도의 몽골 문화유산 조사 필요성⁹⁾

9) 주채혁, “한·몽관계사의 몇가지 문제”, 자쓰긴 가즈린 메테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Мэдээ), 울란바타르, 1993.

이러한 문제들은 몽골학자들도 매우 중요시 여기는 테마로 현재 몽골학자들도 한문사료나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역사서등을 참고로 하는 추세여서 지속적인 학문교류를 통해 과거 한·몽간의 정치관계는 물론 사회·문화면에서도 새로운 연구결과가 속속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3. 제 3 단계(활발한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

1992년 8월 한국과 몽골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학술교류를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한 서강대 동아연구소와 몽골과학원과의 학술교류를 바탕으로 한·몽학술조사연구협회와 몽골과학원은 다시 한·몽양국의 민족기원, 문화, 종교, 언어등의 상호 관련성 연구를 위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고고학, 역사학, 민족학, 역사언어학, 구비문화학, 인류학, 고인류학, 예술사, 자연자원, 과학기술분야, 지역경제 문제등의 연구를 중점과제로 채택하였다.

제1차 학술조사단은 1992년 7~8월에 거쳐 동몽골지역에서 역사, 고고학 분야에서 먼저 구비문학,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의 유물 및 지금까지 몽골측에서 외국학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돌무지무덤, 네모무덤들도 발굴 조사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학술교류는 1993년에 들어 제2차 한·몽공동학술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보다 본격화 되었다. 1993년 7월 고고학, 언어-문학, 역사학, 그리고 형질인류학으로 나누어 2차 학술조사가 이루어 지면서 돌궐시기의 무덤에서 사람의 뼈와 화살촉 등이 발굴되었고, 역사분야에서는 元朝때 몽골사람들이 데려간 고려의 종이기술자들이 일했을 것으로 보이는 종이 만드는 공장유적지를 답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학술조사는 매년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 단순한 발굴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좀더 체계적인 조사보고가 이루어지고 단지 추측이 아닌 실질적인 학술발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¹⁰⁾

10) 참조: 한몽학술조사연구협회, 한몽 공동 학술조사-동몽골 2차년도 보고-, 서울,

같은 해 즉, 1993년 9월에는 서강대 동아연구소에서 1992년의 협약에 따라 몽골과학원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제2차 한·몽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학술교류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1995년은 한·몽 학술교류의 1000주년 기념의 해이다.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고려조정은 성종14년(995년)에 젊은 학생 10명을 거란(몽골)에 보내 그 곳 언어를 배워오게 한 일이 있어 이것을 최초의 학술교류로 본다면 올해는 한·몽 학술교류의 1000년이 되는 해인 것이다. 올해에는 특히 신아시아질서 연구회가 주관하는 제3차 한·몽 학술회의가 몽골에서 열리고, 단국대 몽골학과 학생들이 역시 몽골에서 세미나 참가와 몽골국립대 한국어과 학생들의 서울방문등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해이기도 한 것이다.

V. 인적 교류

한·몽간의 인적교류는 역시 현대에 이르러서 특히 수교 이후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역사적으로 왕실간의 혼인으로 인한 친척관계라는 기본개념이 더욱 친근하고 빈번한 교류로 발전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몽골이 1921년 사회주의화 된 후 양국간의 인적교류는 1978년 8월 몽골에서 열린 세계 아마레슬링 선수권대회에 우리나라의 레슬링선수 14명이 참가한 것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83년 10월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회연맹)總會 참석차 몽골의 대표단 3명이 방한한 것이 몽골측에서의 방한으로는 최초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는 몽골측에서 45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한·몽간의 인적교류의 발전가능성을 시사하였고 1990년 몽골의 민주화 개

력 이래 단시일내에 즉, 1990년 3월 26일 한국과 몽골은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던 것이다. 한국측에서는 권영순 초대 대사가 몽골에 그 해 6월에 부임하였고, 몽골측에서는 우르퀸트룬데브대사가 초대 駐韓 몽골 대사로 91년 2월에 부임하였다.

그 후 여러 경제관계 인사들이 몽골을 방문하였고 몽골에서는 한국의 행정 및 제도 그리고 경제를 배우기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방한하기도 하였다. 특히 국제교류재단에서는 매년 몽골의 학자 및 예술인들을 초청하여 한국 체류기간 동안 한국과 몽골간의 사회 문화 유사성을 연구케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기도 하였다.

정부고위급 인사들의 교류역시 91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는데 91년 3월에는 고포수런 몽골 외무장관이 한국을 공식방문하였고, 그 해 4월에는 푸럽도르지 몽골부총리가 방한하기도 하였다. 한·몽관계가 가장 정점에 이른 것은 91년 10월 22일 푼살마긴 오치르바트(П. Очирбат) 몽골대통령이 방한한 것이다. 몽골대통령의 방한은 양국간의 정치 및 경제협력증진에 기폭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몽교류가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94년 11월 그간 몽골을 방문할 때에는 북경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드디어 서울-울란바타르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인적교류는 더욱 활발해졌다. 서울-울란바타르는 현재 매주 금요일 한번의 왕복항공편이 운행되고 있다.

몽골에 유학하는 한국학생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현재 몽골의 학교에 적을 둔 한국학생의 숫자가 50여명 정도 되는데 일부 학생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몽골에서 연구활동보다는 선교에 적극적이어서 몽골 당국이 학생비자 발급에 제동을 건 적도 있었지만 94년 11월 정식 몽골 국가당국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고 행하는 선교활동을 인정함으로써 공식적인 선교활동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 외에 한국 농촌의 젊은이들이 몽골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야채

를 보다 과학적으로 재배,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 주기 위해 몽골에 가 있고, 무엇보다도 특기할 만한 사실은 몽골의 청년연수단이 매년 10여명씩 방한하여 길게는 10개월 짧게는 1개월의 연수를 받고 귀국하는 프로그램과 한국 외무부 주관의 청년자원봉사단이 매년 10여명씩 몽골에 파견되어 몽골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적 교류 역시 이제는 한·몽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발전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빈번한 인적교류는 고려 초기 몽골제국과의 왕실결혼에 의한 사돈관계보다 더욱 발전하리라 판단된다.¹¹⁾

VI. 동북아에서의 사회 문화적 역할

한·몽 사회 문화 관계의 발전은 앞으로 동북아 諸국가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諸국가들간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한 만큼 굳이 과거 한민족의 대륙진출 시기를 언급하지 않아도 현재 대륙의 諸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및 협력강화로 강력한 동북아세력권을 형성하는 시기로 돌입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여기서 한국과 몽골의 교류발전이 주변국가와의 관계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1. 한·몽·중 관계

한국과 몽골은 90년 이후 특히 정치·사회분야에서 급격한 교류발전을 이룩하였고 경제면에서는 오히려 부진한 감이 있다. 반대로 한국과 중국은 경제분야에서 이미 80년대 초부터 관계를 발전시켜 오다가 정

11) 참조: 최성호, 『몽골』, 한국국제협력단, 1993.1

치, 사회면에서는 오히려 몽골보다도 늦게 1992년에 이르러서야 수교를 통해 교류를 발전시켜 온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몽골과 중국과의 관계는 50년대 중반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 화교학교까지 세울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60년대 들어서면서 중·소관계의 악화로 더우기 66년 소련군의 몽골주둔으로 중·몽은 대립관계로 돌아서며 70년대 국경충돌까지 일어나기도 하였다.

80년대에 이르러 중국의 개방, 80년대 말 몽골의 개혁 이후 양국은 점차 관계개선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89년 몽골에 주둔하였던 소련군의 철수로 40년만에 몽골의 외무장관 곰보썬이 중국을 방문하여 국경협정을 체결하면서 관계개선에 합의하였다. 잇달아 91년 楊尙昆이 몽골을 방문하여 관계개선을 확인하고, 몽골의 밤바썬총리는 중국을 방문하여 李朋과의 회담에서 천진항의 사용허가를 약속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한국, 중국, 몽골의 정치·경제·사회·문화면에서의 교류강화로 이어지는 외면성을 보이지만 여기서 내면적인 문제를 분석하여 향후 삼국의 관계정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주변민족국가에 대해 역사적으로 대국이라는 자부심과 그들은 오랑캐라는 관념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내의 소수민족들은 몰라도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국가라는 형태를 지닌 주변의 국가 특히 한국과 몽골은 현대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중국에 대해 적어도 사회·문화적으로는 스스로 비하한 적이 없다. 몽골은 나름대로 13~14세기 전세계를 지배하며 중국전체를 통치했다는 긍지가 민족감정으로 남아있고 우리 한국 역시 과거 중국에의 조공은 무역의 한 형태로 이해되며, 비록 정치적인 귀속은 있었어도 결코 사회·문화적으로 지배당한 적은 없었다는 관념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관념을 바탕으로 현재 개방의 시기에서 몽골은 정치개혁에서 중국보다도 빠르다는 것 외에 사회·문화적으로 전통적인 것을 재부흥시켜, 경제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중국의 귀감이 되며 중국보다 안정된

개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 역시 몽골과의 사회·문화교류의 증진으로 과거 한민족이 활약했던 광활한 영토를 확인하고 좁은 반도내에서의 파벌싸움보다 유목문화 특유의 보다 대륙적이고 대범한 민족기상을 되찾아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면에서도 중국보다 앞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과 몽골의 협력에 의한 각기 민족의 자존심 부활은 현대에 이르러 과거와 같이 중국이 더 이상 강대국으로서의 자만심을 주변 국가에 펼치지 못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방패를 한국과 몽골이 공동으로 만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 동북아에서의 한·몽·중은 계속적으로 상호협력, 우호관계로 발전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2. 한·몽·러 관계

현상황에서 러시아에는 몽골의 일부 민족과 우리 한민족의 일부가 집단으로 살아가는 공통점이 있다. 즉, 몽골의 북쪽 국경지역 이북에 몽골민족의 하나인 부리아트 몽골인들이 러시아 경내에 자치구를 형성하고 있고 사할린에는 비록 근대에 이르러 이주하였지만 다수의 한민족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비슷한 상황이다. 이것은 민족 감정에 있어서 같은 처지라는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비교적 안 좋은 감정도 포함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감정은 한국과 몽골이 북방정책 시행과정이나 개혁에서 더욱 뚜렷이 부각된다. 먼저 89년 소련군이 일부 철수하고 92년 9월 몽골주둔 소련군이 완전히 철수하기까지 몽골은 그 댓가를 철저히 치러야만 했다. 즉 92년 2월 몽골총리 밍바수런이 모스크바를 공식방문하였을 때 원유원조 등을 논하기 위해 옐친대통령 예방을 신청하였으나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러시아는 그 해 4월 39살의 젊은 중국전문가를 몽골 신임대사로 파견하는 중국 견제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그해 엘친대통령의 시베리아 방문시 몽골과의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과거 66년의 조약내용이 담긴 소·몽 우호조약의 체결을 강력히 제시하기도 하였다.¹²⁾

이러한 러시아에 대해 몽골은 이미 91년 발틱연안 국가들의 독립을 즉각 승인하는등 탈러시아를 표방하여 몽골의 러시아 영향력에서의 탈출을 다른 국가와의 외교관계 확대를 통해 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한국 역시 이른바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소련과 동유럽 붕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對북방외교를 적극 펼쳐 1990년 9월 소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지만 그 댓가로 엄청난 차관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한·몽 양국은 이러한 러시아와의 탐탁치 않은 유사한 경험을 했던 것이다.

결국 한국과 몽골은 중국과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강압적인 태도에 양국의 정치 경제 분야는 물론이지만 사회·문화교류의 증진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북아시아의 알타이계 민족연합체를 구성하여 연대 대응해야 양국의 對러시아 관계가 평등, 호혜의 원칙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3. 한·몽·북한 관계

북한과 몽골은 이미 1948년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지난 90년 한·몽수교까지 줄곧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물론 정치적으로 소련의 지도하에 양국의 관계가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블록안에서의 관계발전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문화교류와는 거리가 멀어서 이념적인 정치교류가 주를 이루었다. 결국 실질적인 교류보다는 정치성이 매우 강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12) 참조: EIU, Country Report: MONGOLIA, 1993.

1990년 한·몽수교후 북한은 항의표시로 당시 몽골에 있던 2명의 유학생과 駐몽골대사를 소환했었으나 1993년 다시 부임케 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지금 현재 남북한의 대사관이 울란바타르에 동시에 주재하는 상황으로 남북한의 대사관이 공존하는 중국에서의 상황과 비슷하지만, 북경에서와 같이 직접접촉이나 남북협상의 장소로 이용되지는 않고 있다.

앞으로 남북한과 몽골의 관계가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에서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다. 남북통일에 대하여 중국을 포함한 주변의 강대국들은 내면적으로는 바라지 않고 있지만, 몽골의 경우 한반도의 통일이 몽골의 해안 진출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UNDP의 두만강유역개발에 몽골이 적극 참여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도) 것을 인지하여 몽골은 실제로 한반도의 통일을 희망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남북한과 몽골은 같은 알타이계통의 민족으로 민족정서면에서의 친근감을 부정할 수 없고 순수 사회·문화교류가 증진됨으로써 삼자의 관계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VII. 結 言

90년 수교 이후 한·몽간의 사회·문화 관계발전은 고·중세에 있었던 한·몽관계 이상으로 동등하고 서로 협력하는 형태로 발전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역사적 배경에서 말했듯이 과거의 한·몽관계 또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상당부분 수정되어져야 하고 대립만이 부각된 분석은 결코 옳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몽골의 개혁과 한국의 북방정책이 들어맞아 단시일 안에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양국의 사회·문화교류는 정치적인 목적외에 순수한 문화

교류차원에서 더욱 설득력이 있어 앞으로 한·몽관계의 전반적인 발전은 많은 변화와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는다.

학술교류에서도 이념의 차이를 극복한 지금 양국간의 교류가 상상외로 빠른 속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더욱 많은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해, 그리고 특수분야 교류를 통해(특히, 형질인류학 부분) 한·몽간에 공동학술 연구가 좀더 활발해 질 것이다.

인적교류 또한 94년 11월 직항로 개설과 발맞추어 과거 그 어느때보다 괄목할만한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한·몽간에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동북아에서 몽골과 한반도가 장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본다.

【ABSTARCT】

The Development of Social & Cultu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Mongolia since 199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social & cultu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Mongolia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March 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Mongolia can be divided into the ancient time, the middle age, the modern ages and the present age. According to a recent archeological research and the historical studies Korean and Mongolian schola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as very strong in the ancient and middle ages. But since the Yuan-Dynas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had been broken off over 750 years. In March 1990,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hip and launched a new area in their relationship.

This paper primarily concerns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ir relationship after the normalization of ties and its influence on surrounding countries, and specifically deals with the role of the traditional national sentiment between the two in their future relationship.

Historically, the conne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consolidated mainly by cultural exchange, which is also expected to accelerate the recovery of relationship today. The war between the Goryeo Dynasty and the Mongol Empire should be re-evaluated. It must be clearly explained that the war was caused by the trick of

a minority who lived between two countries and pressured by Goryeo and Mongol at the tim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Mongol in 1990 is thus meaningful not only for the political side but for the social and cultural re-combination of the two.

During the past years, academic exchanges have also been vivid. At the beginning, Korean and Mongolian scholars had to overcome their ideological differences. Through frequent academic exchange in various fields, however, they could deepen mutual understanding. In archeological researches, studies have been centered on the identification of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In historical fields,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the real meaning of relationship in the middle age and the future course of development.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resume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on the Northeast Asian region, rel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have been considered. Through this study, I reached a conclusion that Korea and Mongolia are required to strengthen their ties and emulate China Russia to prevent their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invasion. As for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e two are urged to make a slow approach to North Korea and let it know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open-door policy of ex-socialist countries.

All these must progress on the basis of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will be more stable than the development solely based on the political link.

참 고 자 료

1. 국내자료

「한몽공동 학술조사 합의서」, 1992.8

김귀산(譯), 「몽고문화사」, 동문선 문예신서 17, 1991.3

김유혁·김봉구, 「몽골에서의 지역계획 참여를 위한 개발추진지원방
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1991.6

김학수, 「두만강지역 개발구상에 대한 논의와 전망」,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993.3

외무부, 「몽골 概況」, 1991.9

임동권, 「한국민속과 몽골」, 몽골학국제학술발표논문집, 1995.6

최성호, 「몽골」, 한국국제협력단, 1993.1

하과, 「1990년 이후 몽골의 민주화와 그 전망」, 몽골학국제학술발표
논문집, 1995.6

2. 외국자료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1991, 1992.

Asian Survey, 1990~1995

C.R. Bawden, The Modern History of Mongolia, Kegan paul
International Limited, 1989.

CRS Report for Congress, Mongolia: Basic Facts and Recent
Developments, 1992.7

EIU, Country Report: MONGOLIA, 1993.

Indiana University, Mongolia: Laws and Regulations, 1992.2

Kim, Sun-ho, Die Entwicklung der politischen Beziehungen
zwischen der Mongolischen Volksrepublik und der

Volksrepublik China 1952~1989, Institut für Asien
Kunde, 1992.

The Academy of Sciences MPR, Information of Mongolia, 1990.

The Government of Mongolia, Programme of Action of the
Government of Mongolia, 1992.

The Mongolia Society Newsletter No.9~13, 1991.9~1993.2

This is Mongolia, 1991.